

일부 지역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 인식도 조사

양승이 · 손가연¹ · 조미숙² · 오상환³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및 연구소 · ¹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교실 · ²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 ³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치위생학과

Awareness towards employment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Song-Yi Yang · Ga-Yeon Son¹ · Mi-Suk Cho² · Sang-Hwan Oh³

Department and Research Institute of Dental Biomaterials and Bio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 ¹Department of Oral Bi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 ³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Medical Science, Kony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ang-Hwan Oh,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Medical Science, Konyang University, Daejeon 302-781, Korea, Tel : +82-42-600-6393, +82-10-2343-7528, E-mail : dentsh27@konyang.ac.kr

Received: 9 April 2015; Revised: 15 June 2015; Accepted: 30 July 2015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towards employment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425 dental hygiene students in Chungcheongdo and Gyeongsangdo from July to September, 2014. Except incomplete answer, 401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program.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ree question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ine questions of awareness towards employment, six questions of awareness of employment preparation, and eleven questions of awareness of employment outlook.

Results: The dental hygiene students prefer to dental hygiene related institution including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general hospital, and university hospital. The awareness for the knowledge of desired employment institution was average. The main access for the information of the employment was internet, and senior and professor's advice, The most important preparations for the employment were a practical skill, trust, certificate, license, communication skill and English proficiency. The future outlook for the dental hygienist within five years was not optimistic, and the best way to overcome the weak point was specialization of the dental hygienist.

Conclusions: This study will provide the useful information on improvement of employment strategy program for dental hygiene students.

Key Words: awareness of employment,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preparation of employment

색인: 치위생(학)과, 취업 인식도, 취업 준비

서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여 자아실현을 성취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좌우하는 척도이자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개인의 목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하는 대학 및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 진학이 매우 중요하고, 그 후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사회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여 올바르게 교육하고 양성하여 학생 스스로가 졸업 후 선택할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 직업인 육성에 힘써야 한다¹⁾.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보건 및 의료향상 이바지에 목적을 두고 일하는 의료관계종사자들은 다른 어느 직업군보

Copyright©2015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다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자의 직업에 임해야 한다. 의료관계직종 중 치과위생사는 국민들의 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구강보건 전문가이다. 이들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²⁾.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치과위생사라는 자아실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야 하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동시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체계적인 학습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추후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³⁾.

그러나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학교 주최의 취업상담 프로그램, 기업체 특강, 해외취업 알선 등과 같은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자신이 선택한 전공학과에 대한 부적응 및 불만족을 겪으면서 향후 진로선택의 불안과 가치관 혼란을 겪는다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위생(학)과 역시 최초 설립 이후 현재 시점까지 학교에서 배출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수가 많긴 하나, 평균 직업수명이 짧은 견해와 더불어 학교로부터 배출되는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⁵⁾.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현황에 대한 인식도 파악과 이들의 취업을 위한 준비행동을 조사하여 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방법 제안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취업 인식도에 관한 연구⁶⁾, 예비치과위생사의 취업의식에 대한 조사⁵⁾,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학과 선택 만족도 및 진로 선택에 대한 조사⁷⁾ 등과 같은 ‘취업 인식도’ 위주의 연구들이

선행되었으나, 이러한 취업 준비를 위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준비 실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지역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 및 취업현황에 대한 인식도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준비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본 자료를 바탕으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취업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충청도 및 경상도에 소재한 7개 학교를 편의 추출하여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및 4학년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 집단을 선정하였다. 총 425부를 배부하여 최종 401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설문지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전에 보고된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고⁸⁻¹⁸⁾, 설문지의 설문문항 중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3문항, 취업인식도에 관한 문항은 9문항, 취업을 위한 준비행동에 대한 문항은 6문항 그리고 취업 현황 인식도에 대한 문항은 11문항으로 총 29문항을 구성하였다.

3. 통계분석

응답이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한 후,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IBM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통계적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⁶⁾	Classifications	N(%)	Total
Gender	Female	392(97.8)	401(100.0)
	Male	9(2.2)	
Grade	3rd grade	307(76.6)	401(100.0)
	4th grade	94(23.4)	
Residential district	Gyeonggi-do	40(10.0)	401(100.0)
	Chungcheong-do	147(36.7)	
	Gyeongsang-do	193(48.1)	
	etc.	19(4.7)	
	Nonresponse	2(0.5)	

유의수준은 0.05에서 검정하였다.

97.8%로 남성보다 월등히 많았다. 학년은 3학년이 76.6%이었으며, 거주지는 경상도(48.1%), 충청도(36.7%), 경기도(10.0%), 기타(4.7%) 순이었다.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여성이

2. 취업에 관한 인식도

조사대상자의 취업 희망 진출 분야는 전공 관련 분야가 9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원 3.0%, 전공 비관련

Table 2. Students' awareness for finding employment

Classifications		N(%)	Total
Desired employment field	The field related to dental hygiene	369(92.0)	401(100.0)
	Graduate school advancement	12(3.0)	
	Studying abroad	4(1.0)	
	The field non-related to dental hygiene	10(2.5)	
	Unthinkingness	6(1.5)	
Desired employment institution related to dental hygiene	Dental hospital	134(36.3)	369(100.0)
	Dental clinic	113(30.6)	
	General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67(18.2)	
	Company(Business)	8(2.2)	
	Health center (Health center branch)	20(5.4)	
	etc.	8(2.2)	
	Non response	19(5.1)	
Student awareness of desired employment institution	High	98(26.6)	369(100.0)
	Middle	197(53.4)	
	Low	71(19.2)	
The route for getting the information of desired employment institution	Internet	171(46.3)	369(100.0)
	TV, Newspaper	8(2.2)	
	Senior's advice	62(16.8)	
	Professor's advice	57(15.4)	
	Association of dental hygienist	4(1.1)	
	etc.	30(8.1)	
	Non response	37(10.0)	
Motive of finding employment	Self-development	43(11.7)	369(100.0)
	Economic reasons	188(50.9)	
	Social experience	64(17.3)	
	Social position	27(7.3)	
	Utilizing expertise	37(10.0)	
	etc.	3(0.8)	
	Non response	7(1.9)	
Selection standard of finding employment*	Commuting time	111(10.0)	1,107(100.0)
	Stable employment	121(10.9)	
	Work-hour	118(10.7)	
	Welfare	157(14.2)	
	Annual salary	211(19.1)	
	Atmosphere at work	242(21.9)	
	Scale of work	18(1.6)	
	Self-improvement	41(3.7)	
	Non response	88(7.9)	

*Multiple response

분야 2.5%, 취업 생각 없음 1.5%, 유학 1.0%의 순이었다. 이 중 전공 관련 분야 진출 희망자의 희망 취업 기관은 치과 병원 36.3%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30.6%,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치과 18.2%, 보건(지)소 5.4%, 회사(기업) 2.2%, 기타(군무원, 의무부사관 등)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망 취업 기관에 대한 지식도는 보통이다 53.4%, 알고 있다 24.4%, 모른다 17.1%, 많이 알고 있다 2.2%, 전혀 모른다 2.2%의 순이었다. 희망 취업 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 경로는 인터넷이 46.3%로 가장 많았고, 선배의 조언 16.8%, 교수의 조언 15.4%, 기타(지인, 실습 등) 8.1%, TV 및 신문 2.2%의 순으로 나타났고, 협회 1.1%가 가장 적었다. 취업 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50.9%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경험 17.3%, 자기 발전 11.7%, 전문지식 활용 10.0%의 순으로 사회적 지위 획득이 7.3%로 가장 적었다. 취업 선택 기준은 직장 분위기가 21.9%로 가장 많았고, 연봉 19.1%, 복지 혜택 14.2%, 안정적인 고용 10.9%, 근무 시간 10.7%, 출퇴근 시간 10.0%, 자기 능력 개발 3.7%의 순으로 직장 규모 1.6%가 가장 적었다<Table 2>.

연구대상자의 희망 취업 지역은 출신지역이 208명(51.9%)으로 가장 많았고, 출신지역이 아닌 수도권 87명(21.7%), 대학(교)이 있는 지역 52명(13.0%), 대학(교)와 출신지역이 동

일한 지역 31명(7.7%), 지방 13명(3.2%)의 순으로 해외 5명(1.2%)이 가장 적었다. 연구대상자의 희망 취업 지역이 출신 지역인 경우, 희망 취업 지역 선택 이유는 편리한 교통이 163명(40.6%)으로 가장 많았고, 희망 취업 지역이 수도권 87명인 경우, 희망 취업 지역 선택 이유는 다양한 경험이 53명(13.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희망 취업 지역이 대학(교)이 있는 지역인 경우, 희망 취업 지역 선택 이유는 다양한 경험이 20명(5.0%)으로 가장 많았으며, 희망 취업 지역이 대학(교)와 출신지역이 동일한 지역인 경우, 희망 취업 지역 선택 이유는 편리한 교통이 25명(6.2%)으로 가장 많았다 ($p<0.001$).

3. 취업을 위한 준비 행동

연구대상자가 고려하고 있는 취업 준비 요건은 실기 능력이 238명(19.8%)으로 가장 많았고, 학점 관리 201명(16.7%), 자격증 191명(15.9%), 화술 150명(12.5%), 영어 137명(11.4%), 외모 관리 128명(10.6%), 대외 활동 54명(4.5%)의 순으로 봉사 활동 20명(1.7%)이 가장 적었다. 연구대상자가 고려하고 있는 취업 준비 요건의 실제 기여도에 대해 도움이 된다가 312명(77.8%)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78명(19.5%),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명(2.7%)의 순으로 나타났

Table 3. Students' awareness for preparation of employment

Classifications		N(%)	Total
Requirement for preparation of employment*	English	137(11.4)	1,203(100.0)
	Management of credits	201(16.7)	
	Certificate(Including license)	191(15.9)	
	Voluntary service	20(1.7)	
	Practical skill	238(19.8)	
	Image management	128(10.6)	
	International activity	54(4.5)	
	Communication skill	150(12.5)	
	Nonresponse	84(7.0)	
Contribution of requirement for preparation of employment	Helpful	312(77.8)	401(100.0)
	Usually	78(19.5)	
	Unhelpful	11(2.7)	
Contribution of preparation program of employment	Helpful	138(34.4)	401(100.0)
	Usually	215(53.6)	
	Unhelpful	45(11.2)	
	Nonresponse	3(0.7)	
Desired preparation program of employment	Dress code and make-up	4(8.9)	45(100.0)
	Communication skill for interview	12(26.7)	
	Resume preparation	4(8.9)	
	Image management	18(40.0)	
	etc.	6(13.3)	
	Nonresponse	1(2.2)	

*Multiple response

다. 해당 치위생(학)과에서 제공하는 취업 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는 보통이다가 215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도움이 된다 138명(34.4%), 도움이 되지 않는다 45명(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치위생(학)과에서 제공하는 취업 준비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연구대상자가 희망하는 취업 준비 프로그램은 이미지 컨설팅이 18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면접 화술 프로그램 12명(26.7%), 기타(추가적인 임상 실습, 취업 정보 제공 등) 6명(13.3%), 복장 및 메이크업 프로그램 4명(8.9%)의 순으로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 4명(8.9%)이 가장 적었다<Table 3>.

4. 취업현황에 대한 인식도

치위생(학)과 학생 수와 향후 5년간 취업 전망에 대한 견해로는 우리나라 치위생(학)과 학생 수에 대해 많다가 281명(70.0%)으로 가장 많았고, 적당하다 109명(27.2%), 적다 11명(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치위생(학)과 학생 수가 많다고 응답한 경우, 향후 5년간 취업 전망은 보통이다가 117명(29.2%)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 치위생(학)과 학생 수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 취업 전망은 보통이다가 49명(1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나라 치위생(학)과 학생 수가 적다고 응답한 경우, 취업 전망은 좋다가 7명(1.7%)으로 가장 많았다(p<0.001).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수에 대한 견해로는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수가 많다고 응답한 경우,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수는 많다가 130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수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수는 적당하다가 61명(1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

나라 치과위생사 수가 적다고 응답한 경우,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수는 적다가 30명(7.5%)으로 가장 많았다(p<0.001). 또한 치과위생사의 수와 향후 5년간 취업 전망에 대한 견해로는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수에 대해 많다가 237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적당하다 109명(27.2%), 적다 55명(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수가 많다고 응답한 경우, 향후 5년간 취업 전망은 보통이다가 96명(23.9%)이었고,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수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 취업 전망은 보통이다가 52명(13.0%)이었으며,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수가 적다 55명(13.7%)고 응답한 경우, 취업 전망은 좋다가 24명(6.0%)으로 가장 많았다(p=0.029, p<0.05) <Table 4>.

향후 5년간 취업 전망이 좋지 않다(100명(24.9%))고 응답한 연구대상자의 어두운 취업 전망에 대한 극복 방안은 치과위생사의 전문화가(전문 치과위생사 생성) 28명(28.0%)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구강 보건 양치실 증원 17명(17.0%), 해외 취업 13명(13.0%) 협회에서 취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권익 보호 9명(9.0%), 치위생(학)과 졸업 정월 감축 8명(8.0%), 치위생(학)과 수 감축 7명(7.0%)의 순으로 나타났다(p=0.634).

5. 적은 구인 수요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한 견해

전공 관련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한 연구대상자가 구직 희망자 수와 비교하여 구인 수요가 적다 89명(22.2%)고 응답한 경우, 적은 구인 수요에 대한 극복 방안은 치위생(학)과 입학 정월 감축이 28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치위생(학)과 수 감축 18명(20.2%), 해외 취업 18명(20.2%), 국가고시 난이도 조절 11명(12.4%) 순으로 나타났다(p=0.001) <Table 5>.

Table 4. Students' view o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employment outlook Unit : N(%)

Classifications	The number of dental hygiene students				p-value*	
	Many	Suitable	Few	Total		
The number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employment outlook for the next 5years	Good	76(19.0)	45(11.2)	7(1.7)	128(31.9)	<0.001
	Indifferent	117(29.2)	49(12.2)	3(0.7)	169(42.1)	
	Bad	87(21.7)	12(3.0)	1(0.2)	100(24.9)	
	Nonresponse	1(0.2)	3(0.7)	0(0.0)	4(0.9)	
	Total	281(70.0)	109(27.2)	11(2.7)	401(100.0)	
The number of Korean dental hygienists in comparison with advanced country	Many	130(32.4)	19(4.7)	7(1.7)	156(38.9)	<0.001
	Suitable	80(20.0)	61(15.2)	16(4.0)	157(39.2)	
	Few	26(6.5)	29(7.2)	30(7.5)	85(21.2)	
	Nonresponse	1(0.2)	0(0.0)	2(0.5)	3(0.7)	
	Total	237(59.1)	109(27.2)	55(13.7)	401(100.0)	
The number of dental hygienists and employment outlook for the next 5 years	Good	70(17.5)	34(8.5)	24(6.0)	128(31.9)	0.029
	Indifferent	96(23.9)	52(13.0)	21(5.2)	169(42.1)	
	Bad	70(17.5)	23(5.7)	7(1.7)	100(24.9)	
	Nonresponse	1(0.2)	0(0.0)	3(0.7)	4(1.0)	
	Total	237(59.1)	109(27.2)	55(13.7)	401(100.0)	

*by chi-square test

Table 5. Students' view on solution to overcome the low-demand for workers

Unit : N(%)

Classifications	Job seekers' view on demand for workers few	p-value*
Solution to overcome the low-demand for workers	18(20.2)	0.001
Reduction of the number of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28(31.5)	
Reduction of an enrollment quota	11(12.4)	
Difficulty adjustment of national examination	18(20.2)	
Overseas employment	6(6.7)	
etc.	8(9.0)	
Nonresponse	89(100.0)	
Total		

*by chi-square test

Table 6. Students' view on the influence of social awareness for dental hygienists on employment field of dental hygienists

Unit : N(%)

Classifications		Social awareness for dental hygienists				Total	p-value*
		High-level	Middle-level	Low-level	Non response		
The influence of social awareness for dental hygienists on finding employment and demand for workers	Many	18(4.5)	51(12.7)	70(17.5)	1(0.2)	140(34.9)	<0.001
	Suitable	10(2.5)	103(25.7)	63(15.7)	0(0.0)	176(43.9)	
	Few	4(1.0)	12(3.0)	66(16.5)	0(0.0)	82(20.4)	
	Nonresponse	0(0.0)	0(0.0)	0(0.0)	3(0.7)	3(0.7)	
	Total	32(8.0)	166(41.4)	199(49.6)	4(1.0)	401(100.0)	
The influence of social awareness for dental hygienists on employment field of dental hygienists	Many	16(4.0)	30(7.5)	22(5.5)	0(0.0)	68(17.0)	<0.001
	Suitable	10(2.5)	103(25.7)	87(21.7)	0(0.0)	200(49.9)	
	Few	5(1.2)	33(8.2)	90(22.4)	1(0.2)	129(32.2)	
	Nonresponse	1(0.2)	0(0.0)	0(0.0)	3(0.7)	4(1.0)	
	Total	32(8.0)	166(41.4)	199(49.6)	4(1.0)	401(100.0)	

*by chi-square test

6.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가 구직 및 구직 수요와 진출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가 구직 및 구직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로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는 낮다가 199명(49.6%)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166명(41.4%), 높다 32명(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인식도가 높다고 응답한 경우,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가 구직 및 구직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가 18명(4.5%)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인식도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사회적 인식도가 구직 및 구직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당하다가 103명(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인식도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 사회적 인식도가 구직 및 구직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가 70명(17.5%)으로 가장 많았다($p<0.001$). 그리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가 진출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로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가 높다고 응답한 경우, 치과위생사의 진출 분야에 대해 많다가 16명(4.0%)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인식도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진출 분야에 대해 적당하다가 103명(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인식도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 진출 분야에 대해 적다가 90명(22.4%)으로 가장 많았다($p<0.001$) <Table 6>.

총괄 및 고안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예방 업무와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구강보건 인력 중 하나이다. 이러한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치위생(학)과는 직업의 목적에 맞는 교육 방향과 내용을 선정하여 학생들을 전문직업인으로 양성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⁹⁾.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

생들의 취업 후 진로에 대한 교육과정 중, 학생들의 적성 및 요구에 맞는 적절한 진로교육 및 이들의 취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및 취업현황에 대한 인식도 파악,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준비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 인식도 조사 중 졸업 후 원하는 진출 분야를 묻는 질문에 92.0%의 응답자가 졸업 후 전공과 관련 있는 분야의 취업을 응답하였고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의 취업을 응답한 응답자는 2.5%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질문에서 비교적 많은 응답을 얻은 기관은 치과 병원을 원하는 응답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치과 의원,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 속한 치과의 순으로 3가지 기관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이 외에 보건(지)소, 회사(기업), 기타에 대한 선호는 소수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치위생(학) 교과목이 이론과 실기에만 치중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²⁰⁾ 학생들의 희망 진로 방향이 병원으로 편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치과위생사는 병원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협회, 식약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재료 회사 등과 같은 정부 기관 및 민간 기업으로의 진로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하는데 병원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병원 이외의 직종에 대한 정보부족 및 준비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곳에 대한 지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대다수가 보통의 지식 정도를 갖고 있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많이 알고 있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취업 정보를 알아보는 매체를 묻는 질문에서는 인터넷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교수 및 선배의 객관적인 조언에 비하여 인터넷 검색이라는 개인의 주관이 개입된 검색과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일부의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취업 정보를 얻는 것은 비전문적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는 취업 성과를 달성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도교수와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바이다. 졸업 후 취업 동기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적 이유, 사회적 경험, 자기 발전, 전문지식 활용 그리고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순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어 이는 직업 선택 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사료되고 직업 선택 시 본질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알 수 있다²¹⁾. 또한 졸업 후 취업 선택 기준에 대한 질문에서는 직장 분위기, 연봉, 복지 혜택, 안정적인 고용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는 응답으로서 직장의 분위기는 취업 선택 기준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⁵⁾. 이러한 결과는 취업 전에는 경제적 이유로 취업을 원하고, 취업 후에는 연봉보다는 자신과 병원이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원활한 직장 분위기를 선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조사에서는 편리한 교통을 장점으로 갖고 있는 자신의 출신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준비 행동 조사 중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준비 요건을 묻는 질문에서 실기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점 관리, 자격증, 화술, 영어 능력, 외모 관리, 대외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예비치과위생사가 견비해야할 능력을 묻는 질문에서 성격, 말씨 및 태도를 중요시한다는 결과와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²⁾. 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론 및 실기와 같은 기본업무교육을 주로 받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 준비에 있어서 지식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사료되고, 반대로 이를 고용하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응대나 병원 내에서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성실성을 중요시 보는 것으로 보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점 차이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 준비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된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움이 안된다 혹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선택한 응답자의 경우 학교에서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이미지 컨설팅에 대한 프로그램 개설 요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면접 화술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취업인식도 조사 중 취업을 희망하는 곳에 대한 지식 정도와 정보를 얻는 매체에서도 나타났듯이 대학마다 취업담당 부서는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치위생(학)과 관련한 전문지식의 미흡과 전공별로 교육을 받은 직업 담당자가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학교의 취업담당 부서의 기능이 약한 것을 알 수 있고 치위생(학)과 내에 본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취업담당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으로 신설되어야함을 시사한다. 특히나 본 연구결과에서 학생들이 많은 비중으로 원하는 실기 및 이론에 대한 교육 외에도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바²²⁾와 같이 개인의 욕구와 직업에 맞는 이미지 컨설팅, 취업을 통과하기 위한 면접 및 화술 프로그램 등과 같이 보다 실무에 가까운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원하는 인재상의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현재 치과위생사의 취업 현황 인식도 조사 중 현재 치과위생사의 수와 치위생(학)과의 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많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치과위생사의 향후 5년의 취직 전망과 일자리 수요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보다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수가 더 많았고 안좋다 혹은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24.9%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에게 취업 전망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치과위생사의 전문화 즉, 전문 치과위생사 양성이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 구강 보건 양치실의 증원, 해외 취업 장려, 협회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권익 보호, 그리고 치위생(학)과 졸업 정원 감축 및 치위생(학)과 수의 감축 순으로 대답하였다. 여기서 치과위생사의 전문화는 의료법 제 78조 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을 치과위생사에게도 적용시켜 취업 전망을 극복시키는 방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 양치실 증원을 통하여 초기구강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²³⁾ 이에 맞게 치과위생사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취업 전망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지고, 치과위생사의 해외 취업을 알선하여 국제화 및 세계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구강보건 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치위생(학)과의 졸업 정원수 감축 또는 학교의 감축을 통하여 치과위생사 인력의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극복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인식도에 대한 질문에서 인식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화와 홍보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사회적 인식도가 치과위생사의 취업 또는 일자리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에 발맞추어 나가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드러나야 한다^{24,25)}.

본 연구는 충청도 및 경상도에 소재한 7개 대학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한정된 동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후속 연구 시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대표성 있는 결과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일반화 시키거나 확대해석하기에는 주의가 요구되나 아직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인식도 및 취업 준비 실태 그리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 연구는 거의 없는 현 실정에서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는 희소가치가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현황(취업 인식도, 취업을 위한 준비 행동, 취업 현황 인식도)을 조사한 것으로서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자기기업

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최종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인식도는 졸업 후 전공과 관련 있는 분야인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의 치과 등에 취업하기를 희망하였고, 취업 희망 분야에 대한 지식 정도는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정보를 얻는 매체는 인터넷, 선배의 조언, 교수의 조언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취업 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경험, 자기발전, 전문지식 활용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선택의 기준은 직장분위기를 가장 큰 선택 이유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연봉, 복지 혜택, 안정적인 고용 순으로 나타났다($p<0.05$).
2.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준비 행동 중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실기 능력, 학점 관리, 자격증, 화술, 영어 능력, 외모 관리 순으로 꼽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 준비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미지 컨설팅과 면접 화술 프로그램, 그 밖에 추가적인 임상실습과 취업정보 제공을 기타사항으로 응답하였다($p<0.05$).
3.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치과위생사의 취업 현황 인식도는 현재 치과위생사와 치위생(학)과의 학생 수가 많다는 응답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5년의 취직 전망/일자리 수요가 보통이라는 견해가 높았다. 또한 취직 전망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치과위생사의 전문화(전문 치과위생사 생성), 학교 구강 보건 양치실 증원, 해외 취업 알선 그 밖에 치위생(학)과 학생 수 및 학과 수 감축을 꼽았다. 그리고 현재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인식도는 낮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진출분야에 대한 생각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p<0.05$).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취업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 졸업 후 치과위생사 스스로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Park DY, Kim DY. A status of vocational consciousness of students in a regional universit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06; 25: 1-32.
2. Kim KS, Yu MS.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 practice performance as dental hygienist. *J Dent Hyg Sci* 2004; 4: 111-5.
3. Kim SS, Go EK. Factors that affect satisfaction of education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06; 6(2): 139-45.
4. Kim YH, Kim KE, Choi JH.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and career maturity amongst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1; 12: 1223-33.
5. Han SJ, Lee SM, Lim MH. A survey on preliminary dental hygienists' senses of employment. *J Korean Soc Dent Hyg* 2007; 7: 583-94.
6. Choe JM. Dental hygiene major student's curriculum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n their occupation in Kyungnam A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2009; 10: 95-108.
7. Lee HE, Kim HY. A Study on the career choice and satisfaction on the major of some of the dental hygienics department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1; 13: 215-28.
8. Jeon MJ, Choi MS, Park JS. A survey on dental hygiene students' senses of employment. *J Korean Soc Dent Hyg* 2009; 9: 1-13.
9. Choe JM. Dental hygiene major student's curriculum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n their occupation in Kyungnam area. *J Korean Soc School Health* 2009; 10: 95-108.
10. Hwang GJ, Jo PG. A study on the sense of professionalism and career for students of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y grad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07; 1: 123-36.
11. Kim JS, Im GO. Satisfaction with department selection and changes in a sense of employment among some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J Korean Soc Dent Hyg* 2006; 6: 103-13.
12. Ko KW, Nam CY.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in Jeju. *Tamla Cultural Institute* 2013; 43: 293-319.
13. Jung HK. The directions of policy toward skillful technicians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for the improvement of job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Application to the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Daegu health college). *J Kor Aca Den Tec* 2006; 28: 83-102.
14. Kim JY, Jeong KO. A study on satisfaction of major at the dept. of dental hygiene, and on attitude one's course of employ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ygienic Science* 2008; 14: 117-25.
15. Jung MJ. The effects of the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maturity on the employment anxiet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Journal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2014; 12: 81-104.
16. Kim KM, Jung YR, Han HJ. A study on the job values and job prefer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09; 9: 1-11.
17. Jung JY, Choi JL. A study on dental hygiene students' consciousness about course education and their occupation. *J Korean Soc School Health* 2000; 13: 131-45.
18. Jeong HJ, Aiko H. Current status of dental hygiene and comparison of some curriculums in Korea and Japan. *J Korea Acad Industr Coop Soc* 2010; 11: 4896-906.
19. Jung SH, Kim EH, Kim HS. A study on educational environments for students fro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 their satisfaction Level with the major in different regions. *J Korean Soc Dent Hyg* 2011; 11: 69-78.
20. Cho YS. Comparison of curriculums of dental hygiene education programs for B.S degree. *J Dent Hyg Sci* 2005; 5: 251-8.
21. Kim HJ, Im KO, Kim YJ. A study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school subject degree of recognition before admission and satisfaction. *J Korean Soc Dent Hyg* 2006; 6: 115-27.
22. Cho MJ, Kim EM, Ha MO. The management effect of TDC(Total Dental Care) internship program. *J Korean Soc Dent Hyg* 2014; 14: 147-54.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2.147>.
23. Choi SL, Kwun HS, Song KB, Lee JH, Kang HK, Choi JM. Effects of school-based oral health programs among schoolchildren: Focus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s. *J Korean Soc Dent Hyg* 2006; 6: 455-67.
24. Lee BY, Lee JY, Im BM, Koo HJ.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n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1; 13: 277-86.
25. Chung WG, Son AR, Jung HR, Kim JY, Ha JE, Heo SH, et al. Cognition and perception of community members about dental hygienist's job. *J Korean Soc Dent Hyg* 2006; 6: 403-17.